

서산의 중요 문화 유적

신 상 찬 (서산문화원장)

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곳

서산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그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유형문화재가 44건, 무형문화재가 2건이 있다. 그 밖에

지정문화재 못지 않은 중요문화재가 지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에 달하며 지정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문화재 중 중요한 것, 내용이 잘못 알려진 것 등을 간단히 소개한다.



해미읍성

1. 선사시대 유적

선사시대 유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해미면 휴암리에 있는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서력 기원전 8세기의 집단 취락지이며 충남지방에서는 제일 오래된 것이다.

이곳은 해미 천에서 약 500m 쯤 떨어진 곳이며, 해미 천을 따라 2km 쯤 내려가면 양림 포구에 이른다. 전형적인 선사시대 집터의 지구이다.

집터 자리 주변에서는 신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빗살무늬 토기편이 무수히 나왔으며 잘게 부서져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신석기인이 살던 터에 지은 집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청동기 시대의 집터와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중앙 박물관에서는 1968년부터 70년까지 4차에 걸쳐 발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무려 20년 후인 1990년도에 발표하였다. 그것도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중지한 상태였으므로 보존에 철저를 기했어야 함에도 발굴 후 방치하여 많이 훼손되었다.

이를 담당했던 김정기 박사는 집터의 유형을 보고 "해미 문화"란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보았다.

확인된 시설물은 부석유구(敷石遺構) 1기,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 11기, 석총(石塚: 돌무덤) 1기, 야외로지(野外爐址) 1기 등이다.

유물로는 돌도끼, 돌칼, 화살촉, 숫돌, 가락바퀴 등 돌 제품이 고루 나왔으며, 토제품으로는 주발, 단지, 기타 그릇의 파편이 부지기수였으며, 특히 골아가리토기, 구멍무늬 토기 등이 나왔다.

조사 당시에는 이런 유적지가 처음 발견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연구발표가 너무 늦어져서 이때에는 유사한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어 관심이 반감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까지도 서산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청동기시대 유적지이다.

2. 백제시대 유적

가. 여미리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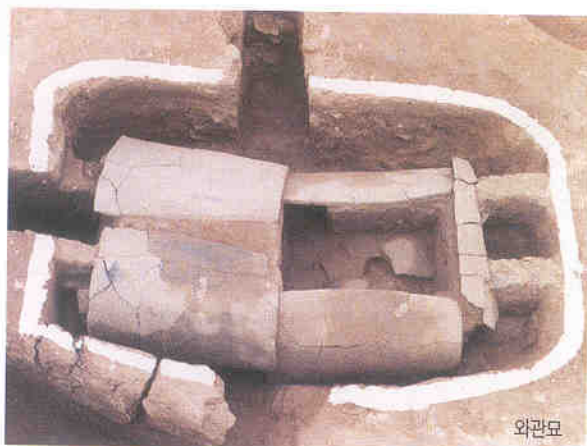
여미리 고분군은 운산면 여미리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곳은 백제시대의 무덤 군으로 토광묘 8기, 석곽묘 20기, 옹관묘 4기, 와관묘(瓦棺墓) 5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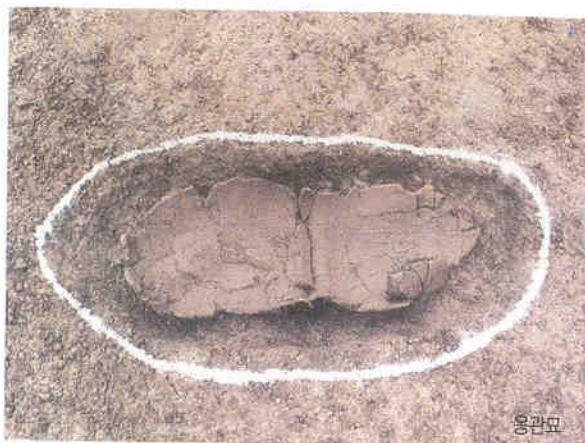
휴암리 출토 토기



다양한 석기



와관묘



웅관묘



가마인물 토기

발견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와관묘(瓦棺墓)로서 지금까지의 묘지 조성방법과 달리 기와장으로 묘지를 만든 것이다.

조성방법은 기본적으로 기반토를 파내고 바닥을 정리한 후 토광내부에 와관을 조성하고 기와나 기와편으로 바닥을 편편하게 하였다. 벽을 조성하는 방법은 4벽 모두 암기 와를 가로로 세워서 조성하는 방법, 또 장벽은 가로로, 단벽은 세로로 하기도 하였다.

뚜껑은 기와를 2~4매를 겹으로 겹쳐 쌓아 처리하였다.

그러나 3호는 장벽도 기와를 세로로 세워 조성하였고, 1호는 단벽을 가로로 세워서 만들었으며, 2호는 토기를 1부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세부적으로는 다양하게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없다.

와관묘의 역사적 의의

여미리 일대는 백제시대 여촌현(餘村縣)이 있던 곳으로 현청 터 바로 옆에 위치하여 이들이 생활하면서 남긴 생활유적이다. 특히 와관묘가 이와 같이 많이 집단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 와관묘는 이 지역에 많이 조성된 석곽묘에 비하여 그 수가 적으며 다른 유적지에서 아직 조사된 바 없어 그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다른 묘들과 함께 조성되면서 주묘제(主墓制)가 아닌 부묘제(附墓制)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석곽묘가 이 지역의 지배층의 무덤이었다면 와관묘는 웅관묘와 함께 그 하위계층 신분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출토유물이 없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묘제 자체로 편년(編年)을 설정하기 어렵고 사용된 기와로 검토하면 삼국시대 말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비도읍기 부소산성과 부여 용정리 사지(龍井里寺址) 익산 미륵

사지의 기와 제작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삼국시대 기와가 출토되는 지역은 도읍이 있었던 지역과 사찰이 있었던 곳, 국가의 중요시설로서 성곽 등에서 사용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위직 신분이어야 하나 규모가 작은 점, 유물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석곽묘 집단보다 한층 낮은 계층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나. 보원사지 (사적 제216호)

운산면 용현리에 있으며 양쪽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인 용현골의 중간에 있다. 입구 쪽을 무릉 동이라 할 만큼 경치가 아름다우며 운산에서 덕산, 예산으로 넘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목이다. 폐사 된지 오래되었으려 현재 남아 있는 유적은 통일신라에서 고려조로 추정되는 5층석탑, 당

간지주, 석조 등이며 고려 초 탄문국사의 보승탑, 보승비가 있다. 이상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다. 건물지로 추정되는 면적만도 30,000여 평이나 되는 거대한 사찰이 있던 터이다.

이 절은 백제 때부터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그 근거로는 백제 550년경 작품으로 보이는 금동여래 입상이 이곳 보원사지에서 출토되었고 서산마애삼존불상이 한 사역 권내에 있는 점, 최치원이 쓴 법장화상전에 의상(義湘)의 학편십찰(學遍十刹) 중의 하나로 기록된 점 등이다.

그 동안 금동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보원사의 창건연대를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보았다. 그것은 남아 있는 유물이 이 시기의 것이었기 때문이며 이후에도 이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음을 본다.



보원사지의 유적

다. 백제의 고로(古路)

태안반도의 항구에서 보원사지, 덕산, 공주, 부여에 이르는 길...

백제는 한강변을 빼앗기고 공주 천도이후 대 중국 교통로로 이 곳 태안반도의 항구를 이용했으며 육로는 고구려와 적대 관계로 이용이 불가능해졌고, 금강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웠을 것이며, 안흥량의 급류와 암초로 인한 항해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했던 조치였다고 본다.

이후 사신 등 중국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데 이는 국력신장으로 잃어버린 고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백제불교 역시 유물, 유적으로 보아 웅진, 사비시대에 중흥되며, 서기 500년도 전후에야 일반 주민 속에 스며들었다고 본다.

* 주 항구

공주나 부여에서 중국에 가자면 육로로 이곳 태안반도까지 와서 배를 타고 갔다고 보는데 이곳은 좋은 항구가 많아 이때 이용한 항구가 어디냐에 여러 설이 등장한다.

첫째,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설. 둘째,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개시포(開市浦, 가시내, 또는 개시내로 부르고 있음) 설. 셋째, 당진군 당진포 설. 넷째, 지곡면 산성리의 닻개(碇浦) 설인데, 조선조 말까지 중국에서 소금, 새우젓 등을 실은 배가 왕래했다는 기록이 있고, 바로 위쪽에 있는 부성산성을 1997년도에 이남석 공주대 박물관장이 지표 조사한 결과, 정황이나 유물로 보아 백제 사비시대에 중국을 왕래하는 전초기지였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상 네 곳은 모든 학자들이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을 뿐, 꼭 어느 항구가 주항구라고 지목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의 배는 목선으로 조류에 따라 바람과 인력으로 노를 저어서 왕래했으므로 주 목적항구가 있어도 부득이 인근

항구에 기항하기도 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주항구가 어디였느냐는 가려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 항구에서 보원사까지

중국을 왕래한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수도가 있는 공주, 부여라고 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흔들리는 뱃속에서 고생하여 상륙하면 우선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보원사였다.

이 절이 있는 위치는 덕산을 거쳐 공주, 부여로 가는 길목이며 가야산을 넘기 직전에 있다. 이 가야산중 가장 가깝고 높지 않은 고개를 넘는 길이며 어느 항구를 이용했던지 이 길을 거쳐서 덕산으로 넘어가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선진 문화를 많이 심어 놓았다고 보는 것은 서산마애삼존불상의 조성이다. 이 거대한 작업은 단순히 석공 몇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보원사라는 큰 절에서 주관하고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 공구, 작업자의 숙식 문제까지 제공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성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야산은 불교의 성산이며, 이 산의 주변에 있는 개심사, 문수사, 일타사 등이 모두 백제시대부터 있었다는 전설과 사적기가 있다. 당시 불교문화가 이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보원사에서 덕산, 공주, 부여까지

이 길 주변에도 예산의 사면석불, 수덕사 등 많은 사찰, 암자와 그 터가 남아있어 불승들의 여행경로를 짐작케 한다.

부여를 "백제 불교 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줄기와 뿌리는 어디인가? 뿌리는 바로 보원사 주변이며, 줄기는 보원사에서 부여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불승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중국식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불상을 조성하였으니 백제불교의 뿌리가 이곳 보원사에 내려졌다고 보며, 이런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덕

瑞山



서산미애삼존불상

산, 예산을 거쳐 공주, 부여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줄기라고 보는 것이다.

라. 서산마애삼존불상 (국보 84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불교문화도 많은 유적을 남기는데, 그중에서도 이 삼존불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이보다 조금 앞서 550년경 작품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입상이 보원사에서 발견되고 예산군 봉산면에서는 바위의 사면에 부처를 새긴 "사면석불"이 발견되었는데 역시 550년경의 작품으로 꼽고 있으며 570년경에는 태안군 태안읍 백화산에 마애 석불이 조성된다.

다음에 이 서산마애삼존불상이 조성된 바 이로 볼 때 500년대부터 600년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불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상 조성에 대한 지식도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처에 대한 설명은 문명대교수의 설 위주로 정리한다.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이 불상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가야산 계곡에 위치한 운산면 용현리의 커다란 암벽을 안쪽으로 파내고 들어가 부조형식으로 조각된 삼존 불상이며 우리나라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불상의 배치는 중앙에 석가여래 입상, 향 좌측에 제화갈라보살 입상, 향 우측에 미륵 반가상을 배치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불 형식이며 두 입상에 하나의 반가상이라는 독특한 배치이다.

본존불의 활짝 웃고 있는 유쾌한 얼굴은 독특하고 참신한 개성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인 가운데 젊고 쾌활한 장자풍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고,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달라지게 한 것은 백제인의 특이한 솜씨이다. 또한 협시불의 티 없이 맑은 웃음도 다른 부처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상이다.

여래입상은 목이 짧고 삼도가 없으며 복련(伏蓮) 대좌 위에서 있고 두광의 원안에는 연꽃과 밖에는 불꽃무늬가 새겨진 보주형 광배이며 불꽃 안에 3구의 화불이 조각되었다.

많은 관광객은 불빛에 비치는 미소만 보고 감탄하면서 돌아서는데, 이 불상의 독특한 점은 미소뿐만 아니라 부처의 종류와 배치에도 있다.

왼쪽의 제화갈라 보살은 석가에게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준 과거불인 연등불의 보살일 때 이름이며, 웃음이 역시 일품이다. 미래불인 미륵 반가상(半伽像)은 당시 유행하던 풍조가 모두 바짝 마른 형태이지만 여기에서는 통통하게 살이 찐 젊은이의 모양이 특이하며 이러한 세 부처의 배열은 이곳 밖에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형공사는 많은 인원과 장비 등이 필요한데 국가 차원이나 보원사에서 주관했을 것이며, 야철·토목 등 관련 기술이 발달했었다고 본다.

조성연대는 600년 전후로 보며 특히 이곳은 백제가 수도를 공주, 부여로 옮긴 이후 해로로 중국과 교통하던 백제의 고로로서 중국을 왕래하던 스님, 여행객과 보원사의 기도처로 조성되었다고 본다.

* 우 협시 보살상은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 모두 관음보살로 보아 왔으나 문명대 교수만 제화갈라(提華羯羅)보살로 보았으며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 보살은 과거에 연등불이 지나가는 길이 질어서 밭에 흙이 묻게 되었음을 보고 석가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밟고 지나가게 한 공덕으로 "장차 성불 하리라"고 수기를 준 부처의 성불하기 전 보살일 때의 이름이다. 즉 법화경의 수기품(授記品) 사상에 의한 삼세불(三世佛)인 것으로 연등불은 석가에게 수기를 주고 석가는 협시한 미륵보살에게 장차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준 미래불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불로 본 것이다.

* 양식적 특징 : 이 마애불의 특징 중 또 하나는 구도의 특이성이다. 일반적으로 삼존불일 때 모두 입상이거나 좌상으로 조성하는 것이 상례이나 본존 입상에 보살입상, 반가상이라는 기발한 착상을 한 것이다. 태안불의 이불병입상(二佛並立像) 사이에 보살입상을 배치한 것과 함께 백제인들은 이러한 파격적인 미를 즐겨 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산마애삼존불상은 백제불교의 불상조성 의지를 알 수 있고 한국조각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품이며 백제의 미소와 함께 우리와 가장 친한 불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조선시대 관방유적

해미읍성 (사적 제116호)

평신진 등 관방유적은 몇 군데 있으나 지면관계로 해미읍성만 살펴본다.

이 읍성에 대한 기록은 그 동안 용도, 내용 등이 많은 변천을 겪는 동안 잘못 알려진 점이 많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해 본다.

위치는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으며 규모는 성곽길이 1,600m, 높이 5m, 면적은 61,000여 평이다. 축성은 조선조 태종 18년부터 세종 3년(1418-1421)사이에 쌓았으며



목적은 충청도의 병마절도사영성으로 쌓았다

* 연 혁

1421-1651년(효종 2년)까지 충청병마절도사영으로 충청도(과거에는 남북도 분리가 안되고 전체를 관할하였다.)의 군사권을 관할하는 대 부대였다. 1652년에는 절도사영이 청주로 이설되고 1652년에는 이곳에 반양리에 있던 해미현청이 이동해와 호서좌영이 되고 겸영장이 배치되어 내포지방 12개 군현의 군사권을 관할하였다.

이순신장군도 이 곳에서 10개월간 군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68년의 남연군묘 도굴사건에 이어 1880년대까지 천주교도 1,000여 명이 순교한 곳이기도 하다.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미현이 서산군 해미면이 되어 읍성으로의 역할은 끝난다.

읍성 폐지 이후의 변화는 동헌 객사, 내아 등 관아가 있던 자리에 면사무소,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이 세워지고 기타 대지는 민간에게 불하하여 사유화 되었으며 1963년 1월 21일 조선 초의 성곽이 잘 남아있어 사적 116호로 지정되었다.

* 복원공사

1970년도부터 복원공사가 시작되어 성내에 있던 관공서, 민가 등을 철거하고 3개의 성문, 포루, 성곽, 동헌, 책실, 내아 등이 보수 및 복원되었고, 기타 옥사 등을 복원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 축성목적 :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았다고 알려졌다. 당시 충청병마절도사가 덕산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어 육로 및 해로의 용이한 이곳에 옮기고자 쌓았다.

* 쌓은 연대 : 진남문 안쪽 인방석(引枋石)에 "황명 홍치사년 신해 조(皇明 弘治四年 辛亥造)"란 진남문의 축조 기록이 있는데 이 해가 성종 22년(1491)이다. 그동안 축성에



청허정(淸虛亭)

관한 기록은 이것뿐이었으므로 이것을 축성연대로 삼았다.

그래서 2002년 이전 홍보물이나 책자가 모두 성종 22년(1491)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록은 1421년 완공 후 70년이 지나서 진남문이 허물어 졌던것을 견고하게 다시 쌓은 기록이지 성곽을 쌓은 기록이 아니다.

* 청허정(淸虛亭) : 음성안의 야산 정상에 청허정이 복원되었다. 1926년 발행의 군지에는 분명 조석기라는 분이 짓고 청허정이라고 했는데도 일부 학자들은 이를 "망루(望樓)"라고 한다.

산 정상에 있고 옛날 성곽에는 모두 이러한 시설이 있어서 짐작으로 하는 말인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이 성이 방어성이 아니라 지휘성이다. 절도사영 시절에는 군인이 850여명이나 있었다. 왜구나 적이 감히 침입할 엄두도 내기 어려운 곳이다. 3대 문루에서만 감시해도 충분했을 것이며 가끔 공무에 지친 몸을 쉬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 천주교도의 순교 : 해미읍성에서 순교한 1,000여명의 신도들은 내포지방 12개 군현에서 끌려온 사람들로써 김대건 신부일가가 있던 당진지방에 많았고 기타 인접한 시, 군에서 끌려 온 사람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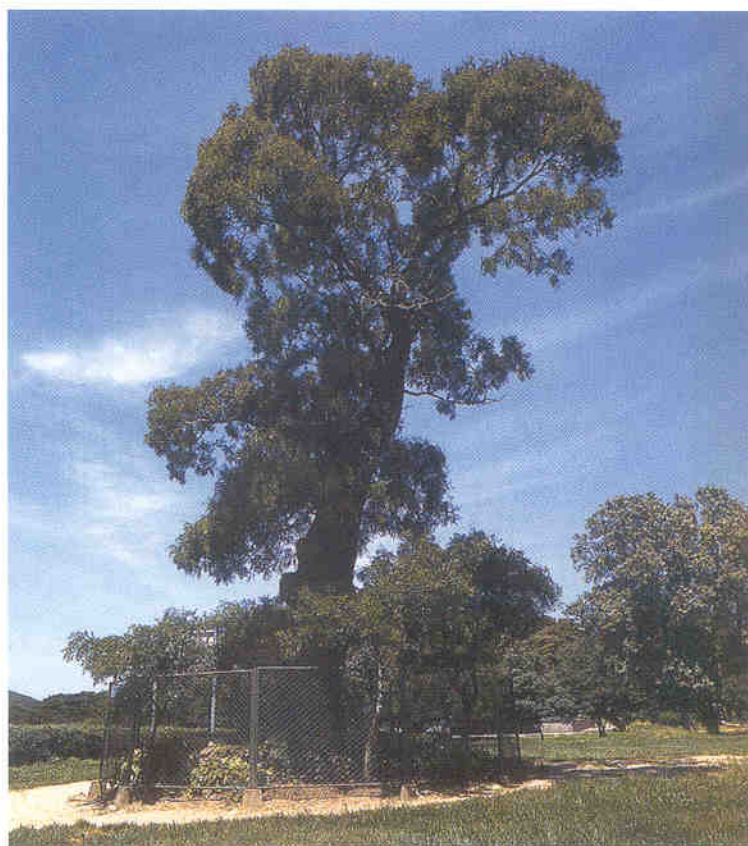
이 읍성의 최고책임자는 겸영장(兼營將)이었으며 토포사를 겸했었다. 토포사는 죄인을 체포 구금,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사형에 처할만한 권한까지 있었는데는 의문이 간다. 당시의 형편으로 보아 천주교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의 순교에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처형했기 때문이다.

처형당한 사람이 일천여 명이란 설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는데 최근 2천명설이 나돌고 있다. 어떤 근거로 하는 말인지 수궁이 안 된다.

고문하던 참상을 어느 신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치도곤에 맞아 머리가 부서져 죽었거나 주리에 들러 몇 번씩 뼈가 휘어지고 다리나 심지어 음부에 톱질을 가하여 살이 삼오장으로 찢어져 떨어져 나가 옥사한 분들...”

옥사 옆 회화나무(호야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물과 비행기 고문을 가하여 살해하고 해미성 성문밖 순교돌 위에서 사령의 호령에 맞추어 형리 4명이 공중에 띄워 자리개질쳐서 되, 골절 파열로 순사케 하고 해미천 변 사려배기 오리



회화나무

나무 숲 속에 방죽을 파고 산자 10여명씩 다발로 엮어 생매장하여 3일 썩이나 곡성이 나게 학살시켜 죽어간 순교 선열의...”

* 이외에도 처형 방법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바 첫째는 호야나무에 매달고 고문한 사례이다.

이곳에서 매다는 목적은 어떤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개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천주교를 믿는다고 끌려와서 심문할 때 안 믿겠다면 방면하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

던 것 같고 끝까지 믿겠다는 사람이 고문의 대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믿고 안 믿는 것을 가리기 위한 것, 죄과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믿지 말라고 개종을 강요하는 절차였다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호야나무에 매달린 내용이 아주 어수선하다.

거꾸로 매달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매달아 놓고 활을 쏘았다는 것, 고춧가루 고문, 물고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한 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사형이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극도의 고문은 필요가 없고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다.

또 목을 매달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역시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가장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두 손을 묶어서 매다는 것이다. 또 매달아 놓고 매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병약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기절하던지 죽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형시킨 것이 아니라 고문에 못 견디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굳이 관아 내에서 사형을 집행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4.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

이 성은 태어날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그 만큼 역사적 사실이 다양하며 이 사항들을 기본으로 한 축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일자는 매년 5-6월 중 첫 주 토, 일요일이다.

이 축제의 특징은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라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체험하는 축제, 역사적인 경험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교육축제,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축제로 구성했다.

프로그램 구성은 관아체험, 옥사체험, 군영체험, 장터체험, 민속놀이 체험, 민속공연, 기타 엽전, 호패, 운송수단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

체험 등 30여종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여 2002년도에 전통 민속 대표축제로 선정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관련 충청권 대책회의

- 박동운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11월4일(木) 오전 07:30, 청주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관련「충청권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박동운 의장을 비롯한 대전, 충북의회의장과 3개 시, 도지사 등 12명이 참석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인 과제이므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일관되게 추진,
- 충청권의 흔들리는 지역민심과 경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단편적으로 거론되는 행정특별시, 행정타운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각종 대안 즉각 중단,
- 충청권 지방4단체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며, 충청권 시·도민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결집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